기획특집

민선 6기 제주의 환경과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 태 일

1. 들어가며

과거 우리나라에서 천도(遷都)하거나 혹은 새롭게 마을을 형성할 때 적용하였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배산임수(背山臨水)이다. 이는 지형지세의 조건을 잘 이해하여 인위적인 구조물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들어 우리나라 도시는 큰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해방 이후 우리나라 도시는 도시화와 근대화의 물결 속에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도시화와 근대화의 물결 속에 추진되었던 이른바 근대도시계획은 자동차의 기능에 가치를 부여하였고 경제성장의 논리 아래 주택과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왔기 때문이다.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인간중심의 생활공간 구축과 실현, 역사적·문화적 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의 정비가 적절하고도 충분히 반영되는 도시와 건축이 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제주도시 역시 한국 제일의 관광지 조성이라는 이름 아래 지속적인 도시의 근대화와 관광지 개발이 추진되어 왔지만 제주의 특수한 지형적인 조건과 환경에 대한 배려 없이 건설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이러한 비합리적이고 비문화적인 도시개발과 생활공간의 오랜 축적은 고스란히 인간에게 되돌아오기 마련이며 21세기 문화와 환경이 지배하는 흐름 속에 제주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어려운 시험과정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선6기 원도정의 환경 및 도시정책의 방향은 21세기 제주미래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제주 도시계획과 생활공간의 위기

2-1. 빈곤한 생활공간의 현실과 과제

과거 쾌적한 삶의 공간 구축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어 왔던 많은 택지개발은 땅 위의 잠재적 가치를 극대화 하지 못한 채 허허벌판을 만들어 개발하고 있고, 제주 다운 경관을 강조하는 도로개발이지만 과도한 절토와 성토로 인해 혐오스러운 풍경만이 남아 있다. 그것도 모자라 민원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평성을 위해 건축물 고도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그림 1).

그림 1. 하늘에서 본 삼성혈과 신산공원 주변

녹색도시와 건강도시를 꿈꾸며 막대한 예산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지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없다. 도심의 다른 한곳에서는 사람과 자동차로 뒤엉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고, 다른 한곳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그리고 곳곳에 대규모 집합주택을 건설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원도심 역시 문제의 본질적인 고민과 해결보다는 대규모 개발에만 집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2-2. 상업에 치중한 개발과 환경훼손의 현황과 과제

아름다웠던 해변 탑동에는 끊임없는 공사의 흔적과 위험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다. 환경의 보고라고 평가하는 중산간 지역에는 지하수, 생태, 경관 관리를 위한 GIS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보전과 관리보다는 개발중심의 관리에 치중되어 골프장과 대규모 리조트 개발로 인해 세계생물권보전지역 등재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투자진흥지구의 지정범위 역시 환경에 민감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끝임없이 경관과 환경훼손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그림 2).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검토와 규제를 위해 구성되는 위원회에 대해 큰 기대를 거는 사람은 없다. 행정기관의 자의적 편의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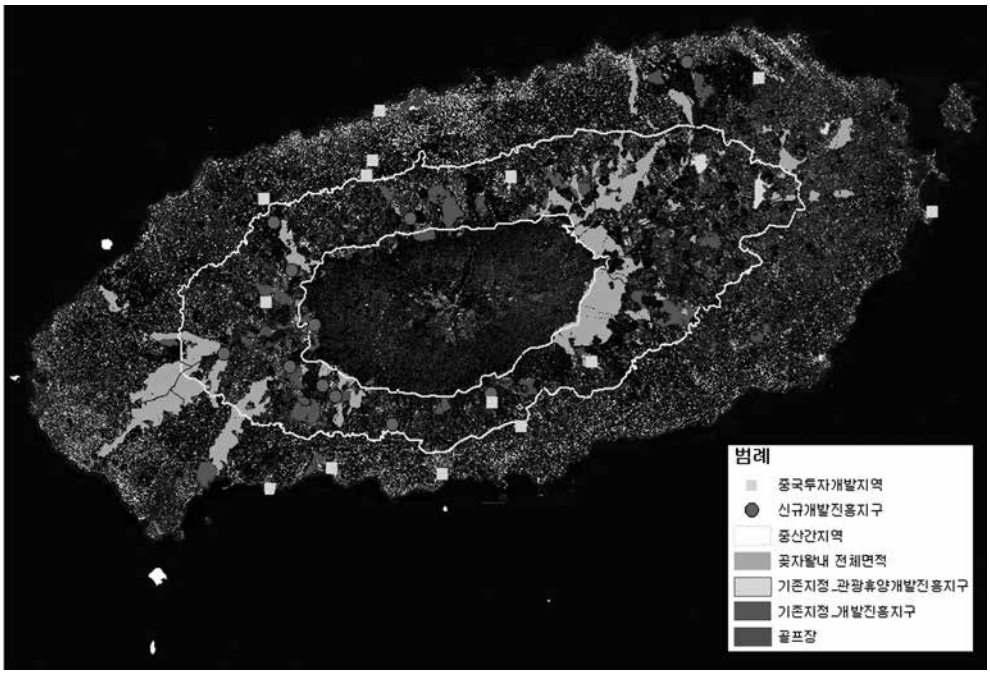

그림 2. 중산간 지역에서의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현황

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종 사업에는 크고 작은 부작용이 뒤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결과는 시민의 몫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지난 날의 시행착오를 정책에 수용하고 개선하려는 행정조직의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시민과의 소통이 없다.

청정지역, 유네스코 등재지역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초라한 삶의 풍경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행정조직에는 어느 누구 책임지는 사람이 없거니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속 시원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다. 환경수도와 창조도시, 녹색도시, 생태도시 등 구호의 홍수 속에 뜻있는 시민들은 우리의 생활기반이 어떻게 변해 갈 것이라는 명쾌한 비전과 확고한 철학을 갖고 세련된 계획을 갖고 실천하는 행정의 추진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고려할 부분이다.

3. 매력적인 제주의 환경과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 핵심방향과 전략

3-1. 환경 및 도시정책의 핵심방향

- 인간과 환경, 그리고 문화의 가치 존중 -

근대 도시계획의 발달은 18세기 후반기부터 유럽에서 나타난『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기술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변혁 이후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산업혁명을 추구하였던 몇 십년 동안은 경제적 자유주의와 더불어 무질서한 도시의 확대를 초래하여, 근대도시계획의 탄생은 오랜 성숙기간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근대도시계획은 상업지역 혹은 주거지역 등으로 구획한 도시공간 속에 널찍한 녹지 한가운데 고층빌딩을 세우고 균등하게 짜여진 도로로 연결되는 지극히 단순하며 획일적 도시공간이었다. 상당히 기능적이고 생산적인 도시구조임에 틀림없지만, 여기에는 인간이라는 생명체의 활동을 수용하고 자연환경의 요소가 녹아 스며들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최근 뉴어바니즘 이론으로서 "휴먼 신도시"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배경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 "휴먼 신도시"의 조건은 지극히 인간중심의 도시를 추구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의 실천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걷기 편한 도시구조를 추구하는 점, 일하고 거주하고 즐기는 곳을 같은 지역에서 해결하는 점, 다양한 계층의 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점, 주거 및 오피스의 밀도를 높이며 중·저층의 건물을 중심으로 건설하는 점, 그리고 전통재료와 형태를 지향하며, 광장 및 상가 등을 마을중심에 배치하는 점 등이다. 인간과 환경, 그리고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도시계획의 신조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과 조화라는 점이며, 이러한 요소들이 원활히 조화되며 살아갈 때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며 여유있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삶의 문화풍경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도시는 인간을 담는 그릇에 지나지 않는 집들과 집들의 단순한 결합체(복합체)가 아니라, 인간들의 집합체, 즉 인간사회 그 자체인 것이다. 도시는 영원한 변천과정 속에서 그 안에서 살면서 도시를 만들었고, 또한 만드는 인간들의 생활의 영원한 연속적 결과이기 때문에, 도시는 단순히 이를 결정하는 설계나 도식(圖式)화 된 계획, 건물의 유무에만 절대로 귀결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환경의 조

화를 이루는 개발철학과 방식의 세심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 여기에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가치를 덧씌우는 소프트한 작업이 가미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21세기 제주의 환경과 도시정책이 가야 할 핵심방향이자 철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2. 환경 및 도시정책의 주요전략

(1) 전략과제1 : 제주의 지하수, 경관, 생태자원의 보고(寶庫)인 중산간지역 보전 및 관리강화 - GIS 등급의 강화와 투자진흥지구의 개선 -

중산간은 제주의 특별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공간이다. 공간지리적으로는 한라산과 해안마을을 이어주는 중간지역으로 중추적인 공간인 셈이다. 생태계적으로는 각종 생태자원이 집약되어 있는 보고(寶庫)이자 4곳의 곶자왈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지하수 자원측면에서 풍부한 지하수 자원을 저장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대규모 공동목장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전략군수물자였던 말을 육성하였던 곳이자 축산업의 핵심지역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산간 지역에는 역사적 문화적 흔적들이 산재해 있어 제주의 중요한 역사문화공간이자 축산진흥공간, 생태공간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의 광풍속에 중산간은 보전보다는 개발의 집중적인 대상이 되어 제주의 역사문화경관과 환경이 훼손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민선 6기 원도정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중산간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GIS등급을 강화하는 것과 도시분야와 환경분야로 이원화되어 있는 중산간 환경보전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중산간 보전관리 강화를 통해 특혜성 대규모 개발을 억제하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과도한 개발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개발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오름 등 자연경관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재정비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2) 전략과제2 : 토지매각중심에서 토지임대중심의 개발정책으로의 토지정책 전환

JDC를 비롯하여 민간개발업자들이 추진하여 왔던 대규모 개발사업들은 일정지역의 토지를 대규모로 매입, 개발하여 분양하는 형식의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개발사업들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들은 크게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개발규모

가 대규모라는 점, 개발지역이 중산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토지를 매입, 개발하여 분양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그리고 토지 매각으로 인해 지역주민과의 관련성이 결여되어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는 관련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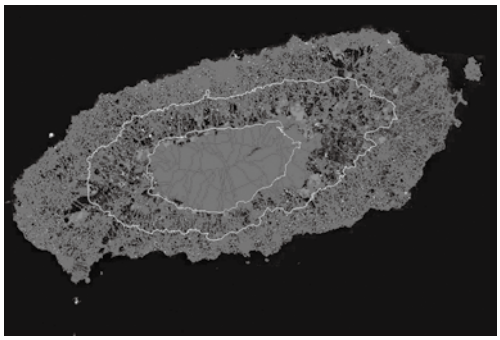

그림 3. 국공유지 분포현황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지역에서의 토지매각보다는 단기적으로는 30년 혹은 장기적으로는 50년간 토지임대를 통해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토지임대방식의 개발사업은 민간소유토지의 경우 개발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개발사업에 지역주민들도 지주(地主)형식으로 참여하여 개발사업의 참여자로 협조하는 방식으로 개발사업자는 과도한 토지매입비의 부담이 줄어들고 토지매입에 따른 시간적 제약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개발에 다른 각종 민원발생의 위험성도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경우 일정부분 개발이익을 확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후손에게 토지를 물려줄 수 있는 재산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개발사업자와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형식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공유지 역시 개발사업자에게 매각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보전관리차원에서 토지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그림 3). 즉 지역사회에 공헌도가 높은 개발사업,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개발사업,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개발사업, 환경보전의 비용부담이 높은 사업의 경우 등과 같은 일정한 원칙에 맞는 개발에 대해서는 국공유지를 저리로 장기임대하여 인센티브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선6기에서는 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정책에 대한 진지한 검토도 핵심적인 사항이 아닐까 생각된다.

(3) 전략과제3 : 제주 특유의 지형을 배려한 건축물 고도 관리와 경관 조성

지속적인 건축물 고도완화 논쟁이 지역간, 이해 당사자간에 적지 않은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제주사회에서의 도시개발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단순히 건축물 고도완화중심으로 도시관리에 집중된다면 단기적 혹은 장기적으로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가 불거져 오히려 도시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할 우려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그림 4).

그림 4. 지형적 특징을 반영하지 않은 채 건축된 신제주의 고층아파트 모습

도시개발과 관리는 건축물 고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법들이 적용될 때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 최고책임자가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하고 확고한 정책목표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부분적으로 특정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고도완화를 하되 도시의 장소를 만들고 상업 및 문화적 중요성을 가지며 지역의 상징성을 갖도록 위치선정과 일정 층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의 형태와 디자인을 차별화시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새롭게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도시를 지구별로 나누어 관리하되 각 지구들은 그 지역만의 역사와 형태를 갖추도록 토지이용 및 패턴을 차별화하여 지역별로 보전, 복구, 재창조 등의 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도심부는 도심재생을 위한 관리, 도심외곽지역은 특성에 맞추어 성장의 방향을 수립하는 도시관리의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4) 전략과제4 : 도시공원, 오픈 스페이스의 적극적인 조성과 활성화

건축 행위는 인간의 생활을 위해 만들어지는 인조환경이며, 이러한 행위 그 자체는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로 연결되기 쉽다. 특히 콘크리트와 철, 유리 등의 인간

이 만든 재료에 의하여 형성되는 건축물에 의해 도시공간은 자칫 메마르고 삭막한 공간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 도시속에 오픈 스페이스의 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오픈 스페이스는 건물이 건립되지 아니한 공개공지이며, 주거생활 이외에 다양한 도시민의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속에 독립된 수림지, 초지 등으로 구성된 공공성이 강한 녹지화된 개방적인 공지이다. 특히, 수림지로 구성된 오프 스페이스가 공원녹지이며 일반적으로 도시공원이라고 부르고 있다.

서구도시가 산업혁명을 계기로 하여 도시속에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뒤늦게 근대화가 시작된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 시설 중에서도 가장 부족하고 취약한 것이 공원녹지라고 할 수 있다. 도시공원과 반대되는 것이 자연공원이며, 자원공원은 자연경관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운영하는 도시 이외의 공원이다. 공원의 기능은 크게 도시공간적 측면과 자연공간적 측면, 그리고 보건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도시공간적 측면은 시가지의 확대를 방지하고 방재와 안전한 생활공간을 확보하는 기능이 있고, 자연공간적 측면에서는 수목공간을 확보하고 경관을 조성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보건적 측면에서는 일반시민들의 적절한 운동공간을 확보하고 나아가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림 5).

그림 5. 프랑스 파리의 도심공간에 위치한 공원. 인접한 쇼핑센터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지며 기능하면서 공원은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고 있다.

그림 6. 프랑스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인 퐁피듀센터는 접근성의 용이함과 넓은 광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 문화이벤트와 분위기를 즐기는 공공예술공간이다.

그러나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원배치계획에 있어서 공원과 녹지계통을 하나의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개 공원의 기능을 충

분히 발휘시켜 도시 전체의 공원녹지를 하나로 묶어 계통화, 즉 공원과 공원 사이를 연결하는 주요간선도로, 공원도로, 녹지대에 의하여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도록 공원계통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계적으로 계통화 공원에 근접하여 문화시설을 배치하거나 이동공간의 적절한 장소에 공공미술들을 설치함으로써 공공문화시설로의 안전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문화시설의 이용률을 높여 문화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삶의 질적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문화선진국으로 불리는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의 도시들이 품위있고 격조있는 것은 적절한 도시의 녹지공간과 문화시설의 근접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그림 6, 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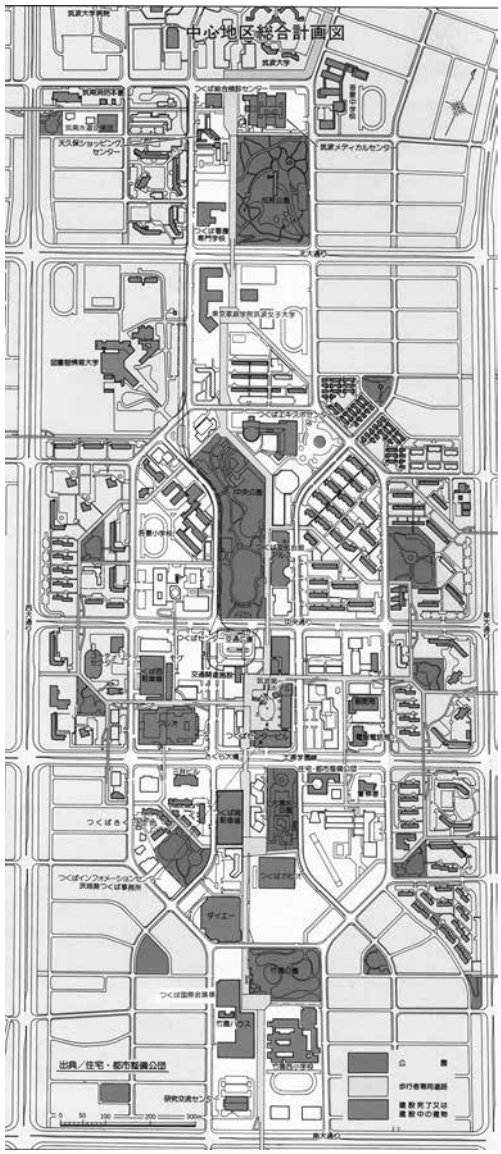

그림 7. 일본의 쯔쿠바시의 도로는 자동차와 보행자 전용도로가 분리되어 있고 보행자 전용도로에 각종 문화시설들이 근접해 있어서 접근성과 편리성이 높다.

그러나 제주도시의 경우는 어떠한가? 획일적이고 도시공간의 구획의 틀속에 단순한 이동통로에 불과한 도로와 무표정한 건축물로 가득하고 도시가 갖추어야 할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녹지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문화시설은 도시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과 이용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생활 속의 공공예술, 공공예술의 대중화는 문화시설 수의 문제가 아니라 알차고 의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에도 적지 않은 문화시설들이 건립되었거나 건립중에 있다. 생활 속의 공공예술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상의 정비가 필요하고 또

한 문화시설 자체의 프로그램 개선도 필요한 때이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타는 목마름으로 수준있는 공공성이 높은 예술을 갈구하고 있고 그런 공공예술공간을 추구하고 있다. 이제는 도시행정과 문화행정의 변화가 있어야 할 때이다.

(5) 전략과제5 : 지역의 건축문화를 반영할 수 있는 택지개발

상업적 목적에 치중하였던 택지개발과 달리 이제는 택지개발의 원래 목적인 주거환경개선과 주택보급의 촉진을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향설정이 필요할 때이다.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지역건축문화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획된 택지를 건설업체나 개인에게 매각하기보다는 일정 블록을 지정하여 국내 혹은 지역의 건축가에게 지역의 문화, 새로운 주거모델을 제안하게 함으로써 주택을 단순히 살기 위한 공간, 돈벌이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거리와 도시의 풍경을 만들어가는 문화적 요소, 그리고 지역건축문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이러한 작업이 문화행사로서 자리매김할 때 건축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6) 전략과제6 : 과거의 흔적, 가치있는 근현대건축을 보전, 활용하는 도시

뒤돌아보면, 이제까지 제주관광이라는 것이 육지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 이곳저곳에 크고 작은 시설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었을 뿐이지 관광 그 자체가 제주사람들의 삶과 연결되는 정책은 아니었다. 그러나 관광의 기본적인 목표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흔적과 생활 문화를 보고 음식문화를 체험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즉 제주의 도시와 건축 그 자체가 제주인의 삶의 공간이자 관광객들에게는 관광의 대상공간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제주의 도시를 아름답고 멋지게 가꾸어야 하는

그림 8. 철거된 근현대건축물(왼쪽 : 카사 델 아구아, 오른쪽 : 구 제주시 청사)

것이고, 그래서 제주의 도시와 건축을 더욱 제주답게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아름답고 멋진 제주의 도시와 건축을 만들어가는 것은 제주에 사는 우리들의 머리와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삶을 여유롭고 풍요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아울러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도 제주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고이 간직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우리들의 문화적 인식부족으로 카사 델 아구아, 구 제주시 청사, 주정공장 사택 등이 철거되어 사라져 버렸다(그림 8). 제주의 근대역사의 단면을 볼 수 있는 문화자원의 소실이자 제주도시의 문화가치의 빈곤이 보여주는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추억이 가득 담긴 도시와 건축 공간을 보전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도록 고민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 되기도 할 것이고 21세기 문화관광의 인프라일 것이다.

(7) 전략과제7 : 협치의 개념에 기초한 적극적인 지역주민의 정책적 참여

마지막으로 언급한 전략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도시계획의 기본목표는 일정한 지역에 있어서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며 편리한 환경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한 인조 환경 속에서 활동하고 생활하게 되는 주체는 주민이며, 따라서 생활환경에 변화를 주게 될 도시계획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생활공간 변화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그림 9).

자신이 살아가는 생활공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자연환경을 존중하며 인간중심의 생활공간을 유지 발전시켜 삶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휴먼 신도시"의 이념인 것이다.

우리들이 형성해 온 오랜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고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고 문화적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도시, 그것이 바로 문화도시이자 창조도시, 그리고 국제적인 도시가 아니겠는가!

그림 9. 주민참여는 스스로가 지역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행정에 지속적인 제안과 협력을 통해 자신의 생활공간을 개선하고 도시공간을 더욱 활력있게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다. (왼쪽 : 주민회의 장면, 오른쪽 : 콘크리트로 조성된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현장 조사하는 장면) (인용자료)

4. 맺으며

제주의 환경이 미래 후손들이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도시를 걸어서 즐거운 도시로 만들 수 없는 것인가? 국제자유도시, 생태도시, 녹색도시, 안전도시, 창조도시, 기후변화 대응시범도시,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를 끊임없이 외치고 있고 원도심의 재생과 지역불균형, 환경과 경관훼손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진정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핵심방향(철학)과 전략을 세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행히 민선6기 원도정 초기에 드림타워를 비롯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원점에서의 논의제기를 하고 있고 또한 중산간을 비롯하여 곶자왈 등 환경 및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향후 원도정의 개발에 대한 방향과 의지를 보여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문제는 법과 제도의 틀속에서 향후 환경보전과 도시개발의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과 작업의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각각 담당국과 부서에 따라 독자적으로 관련정책을 집행하기보다는 상호보완적 관계속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조직의 운영방식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도지사와 국장, 담당자가 바뀌면 추진되는 사업마저 추진력을 상실하는 현실 속에 지속가능한 성장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주발전포럼

* 참고문헌

1. 김태일(2008), 제주도시건축을 이야기하다, 제주대학교출판부.
2. 김태일(2014), 제주도시건축과 삶의 풍경, 제주대학교출판부.
3. 유환종 외 역(1999), 현대도시의 변화와 정책, 푸른길.
4. 진영환 외 역(2006),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시리즈 1, 도시계획의 신조류, 한울아카데미.